

18 장 예수: 유대인의 모든 절기를 위한 사람

By 김이영

1. 주제

복음서의 구성은 예수의 제자들이 회당에서 예배드리며 유대교 예배력에 적절하게 맞추어 예수 이야기를 들려준 것 => 예수체험의 해석을 필요로 했던 제자들이 그들의 (가장 유대적인) 방법으로 유대전통의 영웅적 인물들의 이야기를 극대화하여 예수에게 적용

2. 문제점

- 복음서들이 기록되기 전, 제자들은 회당에서 유대교 예배력에 따라 안식일마다 읽는 성서의 맥락 속에서 예수를 기억하고 회상
- 이들의 관심사는 역사적 사실성보다는 유대적 이미지 안에서 예수를 보고, 예수와 회당 예배생활 사이를 연결시키고자 했다.

3. 논점 ; 유대교 예배력과 연결고리가 어떻게 복음서들의 구성 원리가 되었을까

- 1) 유월절(3 월 하순, 4 월 초순) : 유월절 예수의 처형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예배와 연결된 것(유월절 어린양?) 즉, 막 14, 15 장은 유월절에 읽은 예수의 수난이야기(참조 14 장). 16 장의 부활절 이야기는 유월절 다음 안식일 읽을거리
- 2) 유월절과 수전절(12 월) 사이 : 약 3 개월간 막 9:30 부터 13 장까지 예루살렘 도상의 가르침, 예루살렘 입성, 성전 정화, 예루살렘에서의 가르침들 (세상의 종말 등)
- 3) 수전절 (חנינוּת) : 마카비 시대에 하나님의 빛이 성전에 회복된 순간을 기념. 변화산 예수님 이야기는 예수 자신이 새로운 성전으로서 그에게 지금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는 선포 => 모세와 엘리야가 그에게 복종, 예수를 하나님과 인간이 새롭게 만나는 장소 곧 제 2 의 성전으로 투사 (예수와 성전을 동일시) => 즉, 수전절은 하나님의 빛이 성전에 회복된 것을 축하, 변모는 하나님의 빛이 예수에게 임하는 것을 축하

- 4) 수전절과 초막절(10월) 사이 : 일곱번 내지 아홉번의 안식일, 막 5장 군대 귀신 이야기부터 8장 베드로의 고백 이야기까지 아홉개의 에피소드,
- 5) 초막절 (8 일간의 축제) : 막 4장 => 추수축제기간에 적당한 주제?!!!
- 6) 속죄일 (Yom Kippur) ; 초막절과 속죄일 사이에 한번의 안식일엔 막 3장 후반, 속죄일에는 막 2장과 3장 전반 => 예수가 사탄과 대항하여 사탄의 희생자를 온전하게 회복함(정결)
- 7) 속죄일과 신년축일 (Rosh Hashana)의 사이 : 한번 혹은 두번의 안식일, 막 1:16에서 45절까지,
- 8) 신년축일 : 양의 뿔로 만든 뿔나팔 vs. 인간 뿔나팔 요한(막 1) , 주의 길을 예비, 메시아의 오심, => 확실한 신년절기의 메시지,
- 9) 마태와 누가 : 6개월 반에 해당하는 안식일(신년절에서부터 유월절까지)에 사용할 예수이야기를 제공한 마가에 비해 나머지 안식일에도 읽을거리 제공의 필요를 느낌,
- 10) 마태의 오순절 메시지 : 시내산에서 율법받은 일을 회상하는 축제인 오순절의 철야축제 본문 시편 119편을 따라 산상수훈의 시작을 팔복으로 (Blessed) => 예수는 새로운 산 위에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새로운 모세
- 11) 누가의 오순절 메시지 :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시내산의 율법, 하나님께서 그리스천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성령의 은사
- 12) 공관복음에서 예수의 공생애 기간은 1년으로 보여지나 그것은 공생애 기간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예배력의 기간으로서 그 예배력에 예수의 생애 이야기들이 덧붙여진 것

4. 결론

- 복음서들이 문서화될 때는 예수가 이미 유대교 성서에 의해서 해석되었으며 유대교 성서를 통해서 이해되고 있었다. => 유대교 예배력은 공관복음 속 예수의 말씀과 행적들이 기억된 구성 원리
- 우리의 과제 : 어느 특정 시대에 국한되지 않는 무시간적 하나님 체험 (timeless God experience) 이 애당초 무엇이었으며, 그것은 오늘날 무엇이며,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 체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? 그 실재를 신조, 교리 및 도그마로부터 분리할 수 있을까? 이렇게 드러나는 예수는 그에 대해 역사적으로 형성된 심오한 주장들과 여전히 접목되는가?